

# 충북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C-Track 정식 개소

“충북대 스마트카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약 가능”  
 “C-Track, K-City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한 축 담당”



자율주행 도로 환경 재현, 충북 청주에 조성  
 청주 오창에 자율주행 실험이 가능한 실증 도로가 만들어져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자율주행차가 미래 자동차 산업을 떠오르고 있지만 성능과 안전성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북 지역에 생긴 것이다.  
 특히, 대학, 기업, 연구원, 지자체, 정부 등이

사업비 295억 원을 들여 충북대 오창캠퍼스 8만여 m<sup>2</sup> 부지에 갓길주차구역과 산악 경사로 등 16개 경로가 구축됐다. 테스트베드는 차량 통행이 복잡한 신호 건물목과 회전교차로 등 다양한 도심 환경을 그대로 재현했다. 시험 차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와 이상 발견 즉시 시스템을 개조할 수 있는 시험동

도 들어섰다. 전국 두 번째,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구축돼 특히 지역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자율 주행 연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C-Track

C-Track은 국토교통부·충청북도·청주시·충북대학교가 지역기업 육성·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맞춤형 모빌리티 신산업을 선도하고자 건립한 중·소규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이다. 이번에 개소하는 C-Track은 전국 어디서든 2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었으며, 근방에 국내 최고 과학기술 관련 대학을 비롯하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 대용량ESS센터(음성), 현대모비스(충주) 등이 위치하여 산·학·연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2023년 3월 정식 개소 이전 운영규정 마련을 위한 7개월간의 시험운영 기간 동안 총 9개의 기관이 1,110시간 C-Track 시설을 이미 이용하였으며, 60개의 기관이 자율주행 시나리오 테스트 및 성능평가 등에 C-Track을 이용할 것을 희망하여 국내 자율주행 역량 강화에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C-Track



### 다양한 시험동과 관제센터

C-Track은 총 83,096㎡ 부지에 실제 도로 환경을 반영한 5개 구역 16종 시험로와 차량 개조·시스템 조정이 가능한 시험동 및 시험차량 모니터링을 위한 관제센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시험구역) 도심, 야외, 순환, 응용, 주차 등 5개 구역
- (시험로) 자전거·보행자도로, 버스정류장, U턴구간, 자동차 전용 순환로(1.4km) 등 16개 시험시설

- (기타) 통합관제센터, VILS(차량 기반 가상교통 상황 재현) 시험동 등

시험로의 경우 신호교차로·보행자도로 등 필수적인 자율차 시험시설은 물론, 공사구간·BRT 전용도로·갓길주차구역 등 보다 다양한 도심환경을 재현하였으며, 국내 자율주행 기술수준 향상에 맞추어 비포장로·산악경사로 등 주행난이도가 높은 시험시설까지 갖추었다.

### 기술/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다양한 시험동과 관제센터



위 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4길 45
면 적	83,096㎡ (약 25,180평)
시 설	수많은 위험조건(고위험 시나리오)에 대한 반복 테스트 가능 사고위험 없는 환경에서 고효율의 실차 기반 평가 가능
예 약	충북대학교 스마트카연구센터 홈페이지 ( <a href="http://cbbnuscrc.org">http://cbbnuscrc.org</a> )
문 의	043-249-1683, 043-217-0919

자료와 사진을 제공해주신 국토교통부와 충북대 스마트카연구센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